조선대병원 노사 한발씩 양보…파업 6일만에 철회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
노조원들 오늘부터 업무 복귀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협상 난항

조선대병원 노사가 파업 엿새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조선대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전국 62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한 상급의료기관이었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와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파업 엿새만인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노사는 26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사후조정을 통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되자 곧바로 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들은 4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조리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기본급 2.5%로 임금을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이견을 보였던 인상분 임금 소급시기도 병원측이 요구한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병원측이 제시한 추가 수당 인상안을 노조가 수용하면서 잠정합의안에 마침표를 찍었다.

노사는 보조비·가족 수당 인상, 5년 미만 직원 대상 정근수당 신설, 자녀돌봄 휴가 확대, 대체 간호사 제도 시범 운영 등의 안에도 추가 합의했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6.4% 인상을 요구했고, 조선대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동결을 고수했다.

팽팽하게 대치하던 양측은 파업돌입 전날인 지난달 28일 밤샘 줄다리기 교섭을 통해 타결의 희망을 밝혔지만 소급 적용 시기에 따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을 초래했다.

필수의료 인력을 남기고 파업이 시작돼 정상운영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은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병원과 노조측은 지난 2일 오후 4시 부터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26시간을 넘긴 사후 조정을 거쳐 양측은 극적으로 입장 차를 좁혔다.

반면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조는 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조는 이날까지 병원 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호남권역재황병원 노조도 병원 측에 임금 2.5% 인상과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3월부터 인상분에 대한 소급을 병원 측에 제안했지만, 병원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경영상 적자 누적 등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조는 쟁의찬반투표에서 총 126명 중 87.1%가 파업에 찬성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른 아침 작업 나선 부부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륜오토바이 타고 가다 승합차에 받혀 아내 사망·남편 부상

폭염을 피해 이른 아침 작업에 나서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60대 아내가 숨지고 70대 남편이 크게 다쳤다.

순천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A(5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40분 순천시 서면 도로에서 앞서가던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륜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여·64)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편 C(72)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무더위를 피하려고 이른 아침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A씨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마약류 투약' 배우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완도 금일지역 어민들이 3일 오전 선박에 '완도 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해상 시위를 하고 있다.

〈완도금일 해상풍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해상풍력발전 가시화에…완도 어민들 대규모 해상시위

어족자원 고갈 등 이유 반대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완도 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착공이 가시화 되면서 어민들이 3일 완도바다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대형 해상 풍력발전기가 건설되면 생계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발전사업 반대와 피해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완도금일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완도금일 해상풍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130여명은 91척의 어선을 이끌고 이날 완도군 완도읍 금일읍 도장항 인근 1.8㎞ 해상에서 집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금일 바다 풍력 발전에 반대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배에 걸고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600MW, 계통연계 완도변전소)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사업으로 완도 금일읍 남쪽 바다에 15MW급 해상풍력 발전기 40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이다. 사업비 3조 2000억원으로 전남도 선도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올해 연말 시공사 선정을 통해 내년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7월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금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족자원 고갈, 전자기파, 조업 지역 축소 및 불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있다.

최석칠 완도금일 해상풍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금일 앞바다는 다시마 등 해조류와 전복 양식 등을 하는 청정바다지만, 2~3년간 풍력발전 공사를 하는동안 조류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어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수십년간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은 내쫓길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은 금일을 포함해 신안 전남해상풍력(99MW, 사업비 8000억원, 2024년 12월준공 예정), 영광 낙월해상풍력(354MW , 사업비 2조 3000억원, 2026년 12월 준공 예정), 신안 우이해상풍력(400MW, 사업비 2조 4000억원,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노위, 사측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GGM 노조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촉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사측의 교섭거부와 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노조)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만 노사상생을 외치는 GGM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날 지노위가 GGM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인정, 일부 기각' 통보를 해왔다"면서 "지노위가 교섭거부를 통한 사측의 노조 탄압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7월 GGM의 세 차례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조합이 요구한 10차례 단체 교섭에 모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자 기본협약 철회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을 사외·근무시간 이후로 미루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조정신청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쟁의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GM측은 "지노위 결정은 1·2노조가 통합하기 이전 상황을 두고 판단 한 것"이라면서 "당시 교섭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섭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GGM은 추후 지노위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풀칼라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뚜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 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 설 팅(전문상담) 분 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